

한발 앞선 박지은, 뒤쫓는 조혜연

■ 한국 최초 여류 ‘入神’ 누가 될까

<입신=9단>

박-대리배 우승 등 상승세 9단까지 17국 남아

조-일요일 시합 참석 않고 최근 실력도 하강세



<박지은 7단>



<조혜연 7단>

최근 단(段)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9단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신의 경지’에 들어선 9단이 갖 입단한 초단에 낮뜨거운 폐배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나 여전히 9단이 되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 더욱이 여성들의 입신은 한중일 바둑계의 화젯거리로 떠오를 정도로 허위하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통틀어서 136 명의 9단이 있지만 이 가운데 여류 9단은 중국의 루이아이 웨이와 평원 등 2명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세번째 여류 9단을 향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주인공은 박지은 7 단과 조혜연 7단, 지난 1999년 입단 동기인 두 기사는 지난 6월 나란히 7단으로 승단했다.

그러나 박지은 7단은 조혜연을 멀찍이 따돌리고 현재 9단을 가시

권에 두고 있다. 그는 제2회 정관장 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 7단은 최근에 제1회 대리배 세계여자프로바둑선수권전에서 우승을 차지, 한국기원의 특별 승단규정에 의해 8단으로 승단했다.

그는 특별 승단 규정에 따라 지금 까지 두었던 대국과 승점을 안고가는 유리한 상황이다. 그가 8단에서 9단으로 승단하려면 24국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단위에서 7국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앞으로 17국만 더

두면 9단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반면 라이벌 조혜연은 현재 기세라면 7단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루이아이웨이 9단을 따돌리고 한국 여류국수 타이틀과 여류명인 타이틀을 획득, 한국 여자 1인자가 됐지만 최근 걸음걸이가 더디다.

조 7단은 기독교 신자로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시합에 참석하지 않은 편이다. 국내외 대회에서 활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

양후이는 지난 1991년에 8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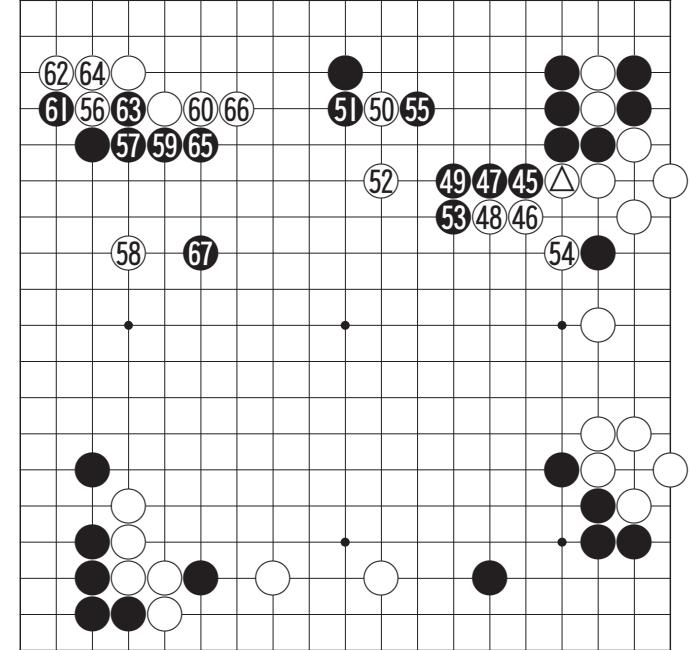
승단했고 7번이나 전국 여자대회에

제16회 광주일보

직장대항
단체 4회전

무겁게 만들어야 했는데…

3보(45~67)

白 이창준 5단
(주) 송립)黑 최한용 5단
(조선대)

여서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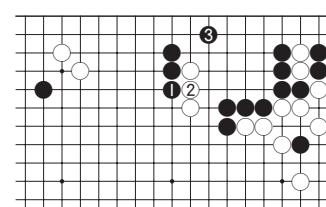
이창준 5단이 50으로 기분좋게 어깨를 짚고나서 나비처럼 52로 날아오른다.

이때 최한용 5단은 흑 53을 선수하고 나서 55로 께붙여 상변을 지켰는데 이 수가 백의 주문으로 작았다.

이 수로는 ‘참고고’의 흑 1로 두어 백 2로 잊어 한다. 그런 다음 3으로 넘어두면 백 석 점이 무거워져서 쉽게 손을 빼지 못한다. 두고두고 공격목표가 되는 것이다.

묵직한 환부가 될 만한 곳이 가벼워지니 백들은 몸이 편할대로 편해져 백 56으로 불하고 58로 오히려 백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나선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참고고>

월간 바둑 “불혹 됐어요”

반상의 영광·애환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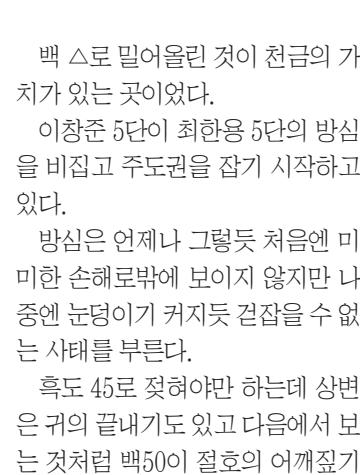
바둑 전문잡지 ‘월간 바둑’이 8월호로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7년 8월 ‘기계(棋界)’라는 이름으로 첫 출발한 ‘바둑’은 2년 후인 69년 8월호부터 현재의 제호로 바뀌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한국 바둑계와 애환을 같이했다.

40주년 기념호인 8월호는 최근 초단 돌풍의 히와 실을 다룬 ‘초단 신드롬, 돌풍인가? 허풍인가?’와 한국 바둑의 후지쓰레 10연패 발자취를 재조명한 ‘후지쓰



배 10연패, 그 영광의 승전보! 등 두 개의 특집을 마련했다. 연재 강좌도 대폭 개편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한국 출신 홍맑은샘

日 아마 ‘명인’ 등극



한국 출신 홍맑은샘 아마 7단이 일본 기원 주최로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제2기 아사히 아마바둑명인전 3번기에서 윤춘호 7단을 2-1로 꺾고 아마명인을 차지했다.

이날 1국을 따낸 홍7단은 이튿날 열린 제2국에서 백 2집으로 패했으나, 같은 날 속개된 제3국에서 241수 만에 흑 4집 반승리를 거뒀다.

홍7단은 한국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일본으로 진출했

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제1 기 대회 우승자는 윤춘호 7단. /윤영기자 penfoot@



거침없는 조한승, 1위 탈환 눈앞

동률 목진석 꺾고 GS칼텍스배 단독 2위

조한승 9단이 GS칼텍스배 리그 1 위 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조 9단은 지난 24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 배 프로기전 본선리그에서 목진석 9 단을 214수 끝에 백 불계로 제압, 리그 4승 1패를 기록했다.

목진석 9단과 나란히 공동 2위를

지키고 있었던 조한승 9단은 1승을 보태면서 단독 2위로 자리매김했다.

/윤영기자 penfoot@

빼앗긴 국수를 되찾기 위한 이창호 9단의 노력이 무위로 그쳤다.

이 9단이 지난 24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51기 국수전 16강전에서 서건우 4단에게 280수 만에 백 1집 반패했다.

지난 50기 대회에서 윤춘상 6단에게 타이틀을 내준 이창호 9단은 시드를 받아 출전했으나 뜻밖에서 4단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윤준상과의 리턴매치를 기약할 수 없

이창호, 국수 리턴매치 불발

서건우에 덜미 16강전서 탈락

이 9단을 꺾은 서건우 4단은 지난 2003년 11월 연구생 입단대회 1 위로 프로에 입문한 뒤 한국바둑리그에서 제일화재 유니폼을 입고 있다. 올해 전적은 21승 14패.

이어 열린 대국에서는 박정상 9 단이 김강근 6단을 꺾고 8강에 합류했다. 이로써 제 51기 국수전 8강 진출자 4명 모두 가려졌다.

4강 각주를 벌일 기사들은 목진석, 이세돌, 박영훈, 정상진, 서건우, 이희성, 김지석, 최기원이다.

8강전은 오는 8월 6일 열린다.

제한시간은 3시간 60초 초읽기 5회.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210-2011-602-252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나리)

무등공인중개사

☎ 02-383-5221 휴 011-603-5221
(삼부자구 입구)

정우부동산

☎ 02-675-4788-7 휴 011-603-4788
(성남동 한일병원부근)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972-4585 휴 011-604-6205
(성남시구 부업A LC빌딩 사거리)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동일동 무등동사거리 광원빌딩 2층)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 목장, 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 서구 서장동 주거지역 800평 1300평 75㎡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 광주시 서평동 지대별 1420평 80㎡ 건축면적,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 광주시 서장동 청정지역 760평 60㎡ 건축면적,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 광주시 서평동 청정지역 1000평 500평

▶ 광주시 서평동 지역 1500평 1000평 100㎡ 건축면적,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 광주시 서평동 75㎡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 광주시 서평동 1420평 1300평 75㎡ 지대별 물류창고지역

</div